

투리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개최

전주 문화공간이름서 18일 이윤정 · 이영신 피아니스트 출연 새로운 음악 향연 선사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전주시 문화공간이름서에서 피아니스트 이윤정과 이영신이 출연하는 특별한 투리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A Journey Through Sound'가 열린다.

이윤정은 이화여자대학교와 러시아 그네신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한 후, 다수의 유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및 독주회 경력을 쌓아왔으며, 이영신은 선화예고와 숙명여자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전문 연주자과정을 이수하며 국제적인 경력을 쌓았다. 이 두 피아니스트는 지난 8년간 많은 호흡을 맞추어왔고, 이번 리사이틀은 팀명을 만들고 처음으로 선보이는 연주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리사이틀은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있어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리차드 로드니 베티의 재즈적 감성이 녹아있는 'Four Pieces Suite for Two Pianos', 다리오스 미요의 강렬한 색채와 브라질 전통 음악의 영향을 받은 'Scaramouche Suite for Two Pianos Op. 165b', 안톤 아렌스키의 우아하고 서정적인 'Suite for Two Pianos No. 1 Op. 15', 그리고 윌리엄 불켄의 개성 넘치는 'The Garden of Eden'이 연주될 예정이다.



투리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포스터

각각의 곡은 클래식과 현대 음악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선사할 것이다.

이다. 프랑스의 감성, 재즈적 요소, 러시아의 낭만주의까지, 투리 피아노 듀오가 선보이는 음악적 대화와 앙상블은 관객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문화공간이름 이윤정 이사장은 "투리 듀오 리사이틀은 단순한 피아노 듀오 공연을 넘어, 음악이 주고받는 대화의 예술임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피아노 듀오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음악이 전하는 감동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두 대의 피아노가 만들어내는 풍성한 하모니와 재즈, 브라질 전통 음악, 낭만주의, 현대 음악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은 색다른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정과 이영신의 뛰어난 연주 실력은 클래식과 현대 음악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관객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음악의 향연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리사이틀 공연 예매는 전화 문의(063-223-5323) 문화공간이름과 네이버 예매를 통해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우리들의 마음을 노래해’ 특별전

무주군, 12월 31일까지 김환태문화관 특별전시실서 개최

무주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김환태문화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한글 동요와 동시를 소재로 한 특별전 '우리들의 마음을 노래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글 동요와 동시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봄·여름·가을·겨울'을 주제로 한 동요와 동시 16개 작품과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전시실 내에서 동요를 직접 듣거나 동시집을 감상한 후 감상 카드 쓰기, 핸드벨 연주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청 김환태문화관 최지향 학예사는 "익숙한 멜로디와 동시 가득한 노랫말이 편안함을 주는 전시회"라며 "진숙하고 정감 어린 작품들을 통해 소중한 분들과 마음도 나누고 각박한 세상을 버릴 힘도 얻어 보시라"고 전했다.

한편, 김환태 문화관은 무주 출신의 비평



문학가 김환태 선생의 생애와 업적, 작품과 유품들을 발굴·연구하고 그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2, 3층에 걸쳐 세미나실과 다목적 영상관, 놀이전시관, 그리고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김환태 선생의 사진을 비롯해 김환태 비평 선집, 김환태 선생의 유산 등 다수의 저서와 유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주 작가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문학강연회 꿈 시작'을 비롯한 '문학감성이카데미', '강경소금문학관 기행', '1:1 맞춤형 문학상담소' 등이 운영되기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TV 드라마 최초 공식 초청 · 상영

전주 로케이션 TV 드라마 '당신의 맛'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올해 영화제에서 TV 드라마 '당신의 맛'을 공식적으로 초청해 특별 상영한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TV 드라마를 공식 초청해 상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KT스튜디오지니가 기획하고 쇼트케이크가 제작한 '당신의 맛'은 식품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작은 식당을 인수 합병하는 '레시피 사냥꾼' 재벌 상속남 한범우(강하늘 분)와 전주에서 간판 없이 원데이를 식당을 운영

하는 셰프 모연주(고민시 분)가 펼치는 성장 로맨스다.

특히 전주의 음식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모든 촬영이 현지에서 이뤄졌으며, 강하늘, 고민시, 김신록, 유수빈 배우가 출연한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당신의 맛' 1화와 2화가 최초 공개된다. 5월 4일에는 상영 후 60분간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박단희 감독, 한준희 크리에이터, 강하늘 배우, 고민시 배우, 김신록 배우, 유수빈 배우가 참여한다.

이날 오후 5시에는 야외무대 인사인 '시네마,

담' 행사도 진행된다. 15분간 진행되는 '시네마, 담'은 전주국제영화제 페스티벌존 내 J 스테이지에서 영화인들과 관객이 만나는 장으로, 영화인들과 함께 봄날의 전주를 만끽할 수 있는 야외 토크 프로그램이다. '당신의 맛' 시네마, 담에서는 GV를 마친 박단희 감독, 한준희 크리에이터, 강하늘 배우, 고민시 배우, 김신록 배우, 유수빈 배우가 관객들과 만난다.

'당신의 맛'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최초 상영 이후 오는 5월 12일 밤 10시 지니 TV와 ENA,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이음' 리더 예술인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5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예술로 이음(이하 예술로 이음)'에 참여할 리더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예술로 이음'은 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이 확장된 파트십을 바탕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조직의 역량과 가치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예술인의

직업적 역량 강화도 도모하게 된다.

오는 23일까지 이메일(jbart2024@hanmail.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도내 예술인으로, 총 8명의 리더 예술인을 선발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로, 리더 예술인에게는 월 14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선발된 리더 예술인은 도내 기업·기관 및 참여 예술인과 함께 △사회공헌 및 사회문제 해결, △기업·기관 조직문화, △지역 환경·생태 문제 해결, △전시 기획(실행), △예술교육 기획(실행) 등의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초 수혜자(신규 참여 예술인)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한 책임멘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가치봄 앰배서더 김보라 배우 선정

전주국제영화제가 가치봄(배리어프리) 앰배서더로 김보라 배우를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최근 가치봄영화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화제 기간 중 5월 7~8일 양일을 '가치봄(배리어프리) 영화의 날'로 정했다.

앰배서더는 가치봄 작품 연계 배우, 감독, 또는 대중성 있는 인물을 기준으로 전주국제영화제와 가치봄영화제가 공동으로 선정했다. 앰배서더로 선정된 김보라 배우는 제26회 전주국



제영화제를 시작으로 올해 제26회 가치봄영화제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보라 배우는 2005년부터 아역 배우로 연기를 시작해 2018년 방영 직후 국민적 인기를 끈 드라마 'SKY캐슬'에서 이목을 끄는 연기로 화제에 올랐다. 영화 <굿바이 씬>(2019), <하드코어 로맨스>(2020), <괴기맨손>(2021) <모탈맨스>(2022), <육수역귀신>(2023) 등에 출연했으며, 드라마에서도 '그녀의 사생활'(2019), 'SF8 우주인 조안'(2020), '모래에도 꽃이 핀다'(2023), '핀란드 파파'(2023), '백설공주에게 죽음을-Black Out(2024) 등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차세대 배우로 주목받고 있다. /장은성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디즈니&픽사 영화음악 FESTA' 25일 개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꿈과 희망의 음악여행 '디즈니&픽사 영화음악 FESTA'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국내 대표적인 클래식 공연 단체인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영화음악으로 꾸며진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 춤추는 지휘자로 주목받고 있는 지휘자 백운하의 유쾌하고 열정적인 지휘로 50여명의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의 모든 파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정교한 무대와 환상적인 연주로 디즈니와 픽사의 매력적인 음악을 원작의 감동 그대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 피아노, 마림

바 솔로, 유튜브 2,000만뷰를 기록한 디즈니 공주로 사랑받고 있는 보컬리스트 이희주가 참여해 한층 더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라이온 킹>, <겨울왕국>, <알라딘> 등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주옥같은 명곡과 <인크레더블>, <UP> 등 픽사 애니메이션의 감미롭고 웅장한 음악들이 오케스트라와 보컬리스트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더해져 관객들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음악여행을 선물한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